

#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시급”

# 남원 오미자, 바이오 소재로 활용

### 에쓰비씨, 중기부 창업 성장기술개발 사업 선정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주)에쓰비씨(대표 안희영)와 남원 오미자 자를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전략적 R&D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연구원과 에쓰비씨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비 13억5천7백만원(국비 10억7천7백, 민간 3억4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산 천연물 자원의 소재원료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산업연구원은 2022년 오미자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고 운봉 오미자가 탈모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남원 오미자의 탈모·발모 효능을 검증하고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산업연구원의 기초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화장품기업과 사업화를 위해 협력을 추진한 결과이다.

남원 화장품 기업 에쓰비씨는 산업연구원이 보유한 남원 오미자의 워간 드린 등 5종의 효능성분을 함유한 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음파공기기술을 접목, 효능성분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확보된 소재를 헤어트니, 헤어크림, 헤어컨디셔너 등에 사용해 고기능성 제품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연구원관계자는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축적해 온 기초연구 결과를 남원시 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의 원료를 활용한 제품개발·상용화 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원바이오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이 창출을 목표로 기존 화장품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연계한 식용곤충 및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한 디지털정밀재배로 연구분야 확장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원시 바이오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의 원료를 활용한 제품개발·상용화 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화진 환경부장관 임실 방문... 심민 군수, 옥정호 권역 숙원사업 해결 당위성 피력

심민 임실군수가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 옥정호 중심의 숙원사업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심 군수는 지난 19일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해 섬진강댐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임실군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을 비롯

한 옥정호 권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심 군수는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옥정호 예코브릿지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옥정호는 1965년 대한민국 제1호 다목적댐 건설로 생겨나 상수원보호구

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큰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민선 6기 심민 군수가 취임한 이후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본격적인 친환경 수변개발이 시작됐다.

섬진강 예코뮤지엄 사업 일환으로 준공된 420m 옥정호 출렁다리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자연경관을 갖춘 봉어섬 생태공원을 연결, 2022년 10월 개통 이후 1년 6개월 만에 11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심 군수는 “봉어섬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량이 필요하다”며 “옥정호 예코브릿지 조성 사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심 군수는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할 뒤 “옥정호 순환도로 미개설 구간 6.4km를 포함한 지방도 717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한 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군수는 지난 19일 섬진강댐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임실군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옥정호 권역 숙원사업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 남원농기센터, 농가 컨설팅 교육 추진

### 딸기 러너 유인·자묘 적엽 실습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19일, 남원명품농업대학 딸기스마트팜반 교육생을 대상으로 딸기 러너 유인 및 자묘 적엽 농가 컨설팅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딸기 육묘를 목표로 1:1 맞춤형 수업으로 딸기 러너 유인과 자묘 적엽 실습을 하였으며,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이용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딸기스마트팜반은 딸기재배(기초) 관리 기술 및 스마트팜 활용 환경 제어 현장 기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으로, 면접을 거쳐 35명이 최종 입학했으며, 교육생 모두가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고인배 소장은 “농업의 활성화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 맞춤형 실습 교



육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내달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

지센터, Wee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의뢰서를 받아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업 선정 시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4만9,000원~8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기준 중위소득 70%, 120%, 180%에 따라 본인부담금(8,000원~2만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추 청고병 예방 농가들의 돈버는 농업 이끈다”

### 순창군, 자체 개발한 유기농자재 ‘청고킬’ 농가 공급량 확대

순창군이 자체 개발한 유기농자재 ‘청고킬’이 고추 청고병(시들음병) 예방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가들에게 공급량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군정 목표인 ‘돈버는 농업’ 일환과 고추농가 수익 확대를 위해 개발한 ‘청고킬’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고추 청고병(뚝마름병)은 고추 뿌리에 침투해 작물을 고사시키는 세균성 병으로, 새벽과 저녁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한낮에만 시드는 증상을 보이며 결국 작물이 고사하게 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청고병 예방 균주인 버크홀데리아를 활용한 ‘청고킬’을 자체 개발하여 유기농자재로 정식 등록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작년 3월부터 공급된 버크홀데리아균은 고추 청고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총 8톤이 공급됐다.

이올러,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4톤이 공급되었으며, 계속해서 많은 농가가 찾고 있어 한주에 1톤씩 배양을 하고 있다.

청고킬은 친환경적인 미생물제제로



작물에 해가 없음을 뿐만 아니라 딸기 잿빛곰팡이병, 토마토 시들음병 등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고추 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업인들이 유용한 농업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화학농약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자재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 신덕면, 행복보장협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 전개

임실군 신덕면 행복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박남용·김선기)가 지난 18일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은 겨울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노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반찬을 지원하는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지난 3월에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햇김치를 만들어 대상 가구를 방문 전달하고 인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높은 효능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두 번째 추진하는 반찬 나눔 사업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협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25명이 참여해 직접 열무김치와 오이김치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전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덕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유한철)에서 신선한 제철 오이 5박스를 기탁하고 이웃사랑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평생교육 프로그램 작품 전시 등 학습나눔 활동 이어져

순창군이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아크릴화 그리기’ 수강생들이 학습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순창 카페 자연다움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아크릴화 그리기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 12강의 수업에 참여해 그림을 배우고, 총 30여 점의 작품을 그려 전시한다.

군은 이번 아크릴화 그리기 프로그램 외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배움을 사회에 나누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댄스 수강생들과 태평소 수강생들은 지역행사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정리수납전문가 2급 수강생들은 오는 7월 취약 가정을 방문해 정리수납 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평생교육 수강생들은 배운 것을 지역 사회에 나누는 학습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